부활절 미사 4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전남 교회와 성당은 예배와 미사를 열고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기원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동 주교좌 본당에서 예수부활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재교육 'OK' 올림피아드 'NO'

학생부에 경시대회 등 성적 기재 못해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적을 수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아예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고교의 모든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종전과 같이 적는다. /연합뉴스

조선대 VS 교과부 이사회 정원 싸움

조선대 "9명→11명 정관 변경 하자 없다"

교과부 "미완성 이사회가 내린 결론 무효"

조선대학교가 정관변경을 통해 추진했던 이사 증원이 일단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개월 전 이뤄진 조선대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정원(9명) 중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 이사회는 교과부가 지난달 11일 부족한 이사 2명을 선임해 이사회 구성이 완료, 정관변경 불허 사유가 해소된 만큼 조만간 이사 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사 증원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조선대는 4일 "교과부에 정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교과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정이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 변경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사 정원 변경은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의결 이후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선대는 지난 2월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원이사 후보 2명을 옛 경영진측 추천인사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추진했다.

당시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 7명이 만장일치로 이사증원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달 내에 재의결을 거쳐 교과부에 안건 인가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옛 경영진의 이사회 진입에 대한 반발 및 시위로 인해 서울 등 대학 밖에서 진행됐던 이사회가 앞으로는 학교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이사회는 현행 직선제인 총장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대학운영자협의회에 제도 보완책을 오는 15일까지 제시토록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또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21세기 발전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마스터 플랜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은 "결원이사가 충원돼 이사 선임이 완료됐다. 새로운 이사 2명에게 이사증원에 대해 설명, 대학과 교과부 등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이사회도 학내에서 열 예정인 만큼 구성원들도 대화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림픽공원 청룡다리 붕괴 1명 부상

우측 인도 60m

4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룡다리의 인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지나던 행인 정모(52)씨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정씨는 약 60m 길이의 다리 3분의 2 지점을 지나다 7m 아래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팔과 다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986년 4월30일 준공한 청룡다리는 올림픽공원 북2문과 공원 내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다리로, 북2문을 등지고 섰을 때 우측 인도가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다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도로와 인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해 지난달 15일부터 공원 내부로 통하는 2개 차선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정밀안전진단 중이었다. 그러나 보행자의 다리 통행은 통제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빚을 뻔했다. /연합뉴스

"배심원 평결과 일치한 참여재판 존중해야"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된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23)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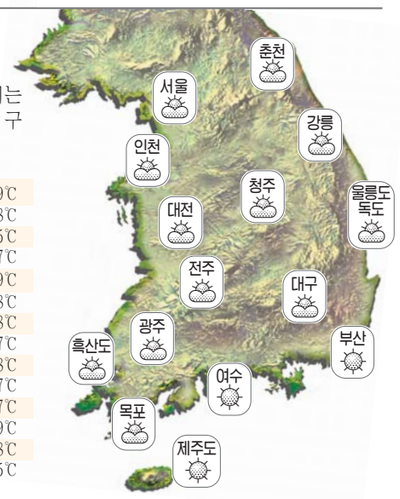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5분 해짐 18시 57분 달뜸 00시 37분 달짐 10시 23분

식목일 "나무심어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 많음	8/19℃
목 포	구름 많음	8/18℃
여 수	구름 조금	8/15℃
완 도	구름 조금	6/17℃
구 례	구름 많음	5/19℃
해 남	구름 많음	7/18℃
장 흥	구름 조금	6/18℃
고 흥	구름 조금	6/17℃
순 천	구름 조금	7/18℃
영 광	구름 많음	6/17℃
진 도	구름 많음	8/17℃
전 주	구름 많음	6/19℃
남 원	구름 조금	3/18℃
흑산도	구름 많음	8/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6:25 18:02	11:39 23:22
여수	00:54 12:17	07:07 18: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 씨						
최저/최고	9/16	3/15	4/16	6/17	7/18	8/18

나무 심기 좋은 날

포근한 '청명'

식목일이자 청명(淸明)인 5일 광주·전남은 맑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입산객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

5·18 30주년 행사위

자원봉사단 모집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3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0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는 행사위 홈페이지(http://518gj.org)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 062-352-0519.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